

[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올스톱 되나

민주노동당 총파업 찬반 투표
건설노조 16일부터 파업 예고

고유가 파고를 견디지 못한 전국은 수산업노조 화물연대가 결국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산업노조도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 10일 하루 동안 전국에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달 중순 전국이 본격적인 '하루(夏)정국'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운송로 현실화, 경유가 인하, 표준요금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삼성광주전자와 금호타이어, 엠코코리아 등 지역 대형 수출기업들이 납기 지연 등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 10일 하루 동안 전국에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달 중순 전국이 본격적인 '하루(夏)정국'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8%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있는 컨테이너와 대형 화물차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도 파업대열에 동참했다. 광주·전남지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조는 덩크연대를 비롯해 굴착기, 레미콘, 볼도저 등 특수기계 차량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으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은 1천500여명이다.

확보하고 화물트럭 운송 물량을 철도와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2003년의 총파업 때와 같은 물류·운송대란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기업이나 광양제철, 여천화학단지 등에서 저 특수기계 차량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으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은 1천500여명이다.

정부는 군 컨테이너 트럭 100대를 /한정기자 ajh@kwangju.co.kr



올해 첫 징병검사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시작된 올해 첫 징병검사서 신체검사 대상자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현역 임명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는 오는 11월28일까지 계속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임단협 타결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과 노조는 9일 오후 동구 광산동 버스조합 사무실에서 협상을 갖고 ▲2개월 마다 한 번씩 고정급으로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 85만879원에서 105만368원으로 인상하고 ▲김장보조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자 60%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 16%를 각 회사 면허대수별로 적립기로 했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3.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10일까지 유보했던 파업을 철회키로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빛다만평 - 김중두

이게 민심소통의 결과입니까?

목포 '성 미카엘 대성당' 건립 축복식

11일 신정동 옛 성 골롬반병원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300억 봉헌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11일 오전 10시30분 목포시 신정동 옛 성 골롬반병원 부지에서 '성 미카엘 대성당'의 성공 건립을 기원하는 부지 축복식을 갖는다.



목포시 신정동 옛 성 골롬반 병원 부지에 들어설 세계적 규모의 '성 미카엘 대성당' 조감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제공)

김희중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의 주례로 열리는 이날 축복식은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대주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1만3천663㎡(4천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성 미카엘 대성당은 1천500석 규모의 대성전을 비롯해 사제관·교육관·수녀원·가톨릭 역사박물관 등 모두 7개 건물로 이뤄진다. 목포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70m 높이의 상징타워도 세워진다. 오는 9월 착공,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성 골롬반병원 부지는 광주·전남지역 가톨릭교회의 시발점이자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지난 1983년 4월 성 골롬반병원이 개원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온 성지로 알려져 있다.

목포시는 성당이 들어서는 신정동 일대를 세계적인 성지 순례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성당을 포함해 29만9천992㎡(9천822평)의 대지에 2천512㎡(760평) 규모의 시민권시설·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인접한 성신간호전문대학 운동장을 시민주차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마무리될 경우 성 미카엘 대성당은 국내외 천주교 신도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목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 미카엘 대성당은 지난 2006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세계적인 성지개발과 목포 원도성 활성화를 위해 사재 300억원을 광주대교구에 봉헌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대주그룹이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가 베풀어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봉헌을 결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주그룹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그룹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전을 짓기 위해 기술진을 유럽 등지에 파견, 선진 시공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성당건립에 공을 들여왔다. 대성당 설계는 건물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 국제 지방초청 공모를 통해 확정됐다. /목포=이성진기자 ssl@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정부 민생 대책...중·고교생 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도

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국회담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 1학기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종전대로 거쳐 기간에 이자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천723만~3천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3% 포인트 내린 4.65%

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천273만~4천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이 세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 포인트 인하된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고교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평균 20만원 가량의 학교운영지원비

를 오는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고 차상위 계층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 계층 학생의 70% 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11년까지 지원 대상을 10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생들 중 일부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올해 역시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전체 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방과후 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5천756개로 늘려 초등학교 한 곳에 평균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유가 타개... 에너지 절약 적극 참여를

박준영 전남지사 호소문

최근 130달러를 오르내리는 초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이 계속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9일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호소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써 초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너지 절약"이라며

"3개분야 15개 에너지 절약 실천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 사무실, 법도민 등 3개분야

주요 실천과제는 ▲쓰지않는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로등 적당하게 켜기 등이다 /채희중기자 chae@

광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107-228160
◆동해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SONY의 모든것
www.119accessories.co.kr
소니광주전판매(062)522-2000

상속행정승인공고
당 회사는 2008년 5월 30일 개회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중 진행중이오니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본 공고의 게재 익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나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나 채권 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주식회사 광진고속
전라남도 영암군 신하리 4-8
정산인 김한근

여수 화양지구

남도 투자최적지

① (현)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2008년 내에 용도변경 현재용도변경용역중 (돌산청사 관광개발과)

② 2008년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③ 화양면과 남도의 연육교는 현재 기본 설계비 20억 배정 (익산국토관리청)

④ 사도는 보존하고 남도는 개발(관광과)

⑤ 통일교 (주)일상에서 화양지구(남도 포함)를 2015년 완공목표로 1조5천억원 투자개발

① 임야 2,820평 평당 7만원 (1필지)
② 임야 50,970평 평당 5만원 (총8필지)
③ 임야 5,550평 평당 7만원 (2필지)
④ 임야 7,380평 평당 5만원 (1필지)

투자상담 ☎ 019-641-2000

산행안내

6월 11일(수)

- ▲광주유산인회 6월 11일(수)경남 병천역 6시30분 광주 이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 ▲대전유산인회 6월 11일(수)대전 7시 광주에, 연방회 6월 11일(수) 7시 광주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 ▲광주유산인회 6월 11일(수)광주 7시30분 광주 이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 ▲대전유산인회 6월 11일(수)대전 7시 광주에, 연방회 6월 11일(수) 7시 광주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6월 12일(목)

- ▲기독교산악회 6월 12일(목) 광주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 ▲광주유산인회 6월 12일(목) 광주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6월 14일(토)

- ▲광주유산인회 6월 14일(토) 광주출발 회차(9시30분) 1001-620-2402

6월 15일(일)

- ▲요산요수산악회 6월 15일(일) 7시 천대